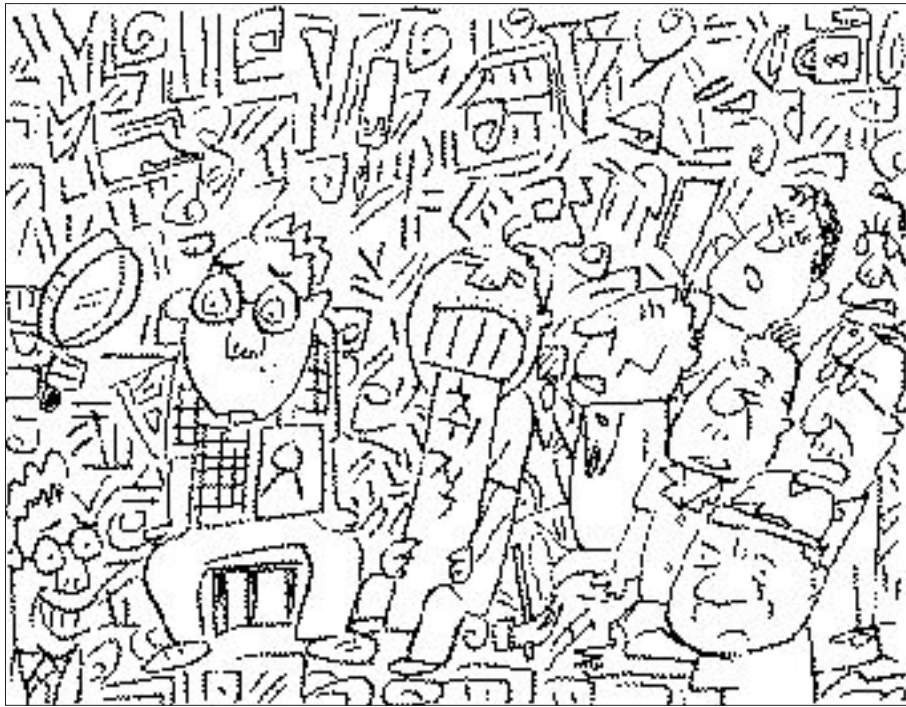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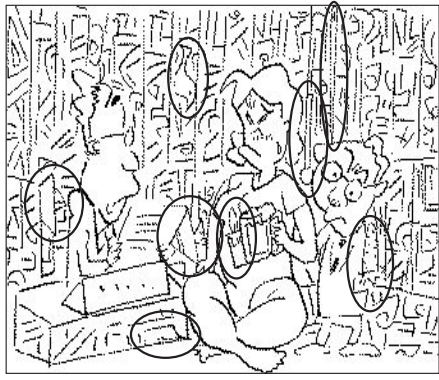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62 >



찾(아)보(세)요 자물쇠, 망치, 촛불, 알파벳 A자, 대접, 열대어, 뭇, 서둘룩, 펜촉

섬뜩한유머

요즘 20대가 취직하면 - 가문의 영광 30대가 직장다니면 - 동네 잔치할 일 40, 50대가 아직 퇴직 안했으면 - 국가적 경사 60대가 아직도 은퇴 안했으면 - 세계 8대 불가사의 추가) 한국에서 여전히 사업 하고 있으면 - 21세기판 한강의기적



지나주 정답

펜촉, 열대어, 당근, 촛불, 종이배, 바늘, 새, 성냥개비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내선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박은정 <보성군 보성을> 김형기 <광주시 북구 운암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23년 3월 1일 방정환 '어린이' 창간

어린이날만 되면 아이 기억에 남는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려는 부모들의 고민도 커진다.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이가 소파 방정환이다. 그 이전까지는 동몽(童蒙), 소년, 아이 등이었다. 지금은 흔하게 사용하는 일상어지만 당시만 해도 낯선 '신조어'였다. 애를 어린이라고 부름으로써 늙은이·젊은이 등 어른과 동등한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어 그는 1923년 3월 1일 최초 어린이 잡지인 월간 '어린이'가 창간 선언으로 탄생하게 된다. 또 그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 전국적으로 개최하면서 어린이는 일상어가 된다.
당시 거리에 뿌려진 '어린이날의 약속'이라는 전단에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린이를 결코 억박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친한해 가며 기르십시오. 어린이의 몸이 자주 주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책을 늘 읽히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어린이'는 근대 아동 문학의 요람이었다. 이 잡지는 내용은 물론 종래와 다른 예쁜 편집으로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호를 거듭하면서 색동회 회원들의 열정 어린 참여가 있었다. 그는 이 잡지를 통해 수많은 동화를 발표,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안겨 줬다. 특히 민족 의식을 고취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일제가 개박지와 함께 '어린이'가 가장 극심한 삭제·압수·휴간·폐간의 칼날을 휘두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당시 '어린이'는 매 호에 우리의 옛 모습·우리의 얼·우리 것에 대한 계몽과 소개, 우리말과 우리글을 통한 적나라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같이 아닌 붓으로서의 일제에 대한 저항 운동을 폈다.
동요 '고향의 봄'과 동화 '호랑이 굴감', 동시

'까지까지 실낱이' '어린이'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소파는 서울시 종로구 '야주개'에서 어물전과 미곡상을 하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조실 부모로 고아로 어린시절을 보냈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선린학교에 들어갔으나 생계를 위해 중퇴하고 1917년 18세 되던 해에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의 셋째 딸과 결혼한다. 이 결혼은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을 위해 커다란 행운이었다. 뒷날 그는 천도교의 지원으로 천도교청년회·소년회의 일을 맡아 보면서 '어린이 사랑'으로 일생을 일관하게 된다. 평생 가난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동보 아저씨는 자나깨나 어린이 생각으로, 어린이만 위해 살다가 1931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요즘 어른들,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조건 공부해야 출세한다고만 하지는 않는지,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새길 필요도 있는 것 같다.

/김지들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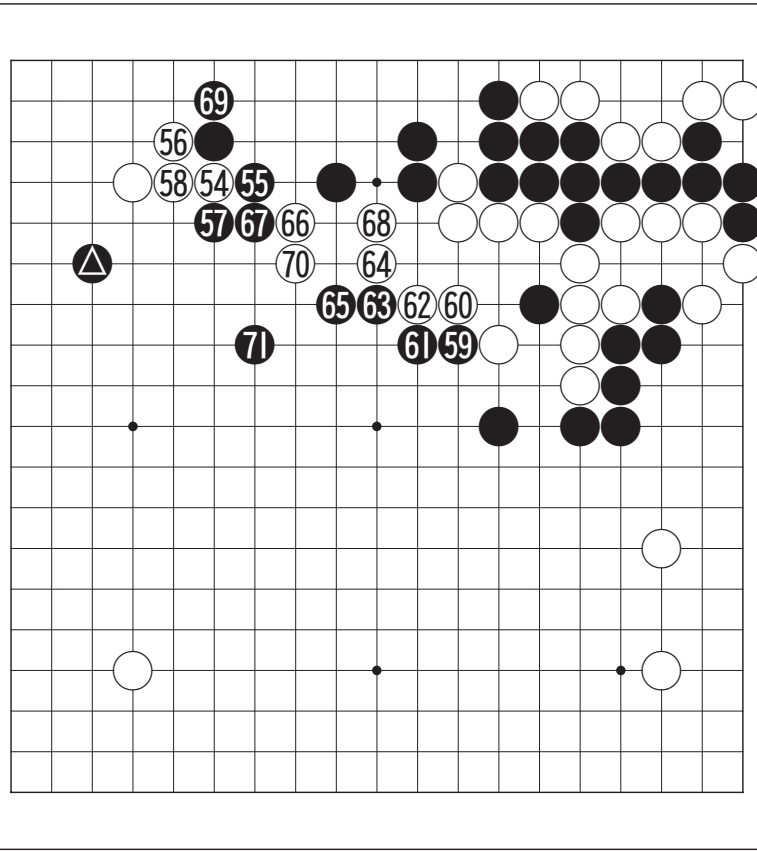
뉴스퀴즈

53. 국내 4개 도시가 4대 국제 스포츠 박람회 이벤트 유치에 나섰습니다.
평창은 2014년 동계올림픽, 대구는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인천은 2014년 아시안 게임 유치를 신청해 최근 평창과 대구에 대한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오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이 도시가 오는 4월9일부터 13일까지 현지 실사를 받습니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① 여수 ② 광주 ③ 목포 ④ 순천

참어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내선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8일(음 1월 11일 癸巳)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고수의 혼비백산 4보(54~71)
명인전 예선회전 白 조훈현 9단 黑 조경호 초단
중 앙 공격을 보류하고 흑 ▲로 손을 돌린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러면서도 두대국자는 모두 중앙의 백 대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 54가 중앙을 의식, 빨리 안정하려는 수였으나 이 수가 상대를 가볍게 본 천하의 대마수로 패착에 가까다는 혹평을 받았다. 흑 57이 백속까지 아픔이 스미는 강렬한 한방으로 다음 59의 공격에 백 대마가 빈사지

바둑소식

일본의 만나미 가나 3단이 최근 열린 제10기 일본 여류기성전 도전 3번기 2국에서 우메자와 유카리 5단을 268수 끝에 백 2집 반으로 제압,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기 대회에서 지낸 가오리 4단을 꺾고 여류기성을 차지한 만나미 3단은 최종국을 따낼 경우 대회 2연패를 달성한다.
반면, 우메자와 5단은 선취점을 올렸으나 2국을 내준으로써 3국에서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한다.
우메자와는 여류최강전과 여류화성전에서 두 차례 준우승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일본 여류기성전 우승상금은 한화 약 3천8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 large section containing language learning materials for English, Korean, and Japanese. It includes phrases like 'Don't be a party pooper', 'きまってるね', and '少林寺', along with their meanings and usage example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child,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roduct.